

러시아문학 속에 꽃핀 동양정신

소련문단의 샛별 아나톨리 김의 작품 세계

“사할린에, 까자흐에, 모스크바에 60만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다. 조국은 그들을 찾지 않으나 그들은 조국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찾아나설 때이다.”

시대의 변천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소식이 속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념의 벽에 가로막혀왔던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상은 우리의 낯을 시큰하게 하는 바가 있다. 얼마전 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온 소련 성악가 루드밀라 남과 넬리 리의 독창회에 장내가 온통 울음바다가 됐다는 소식은 도대체 같은 민족이란 것이 뭔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되새기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두 성악가는 조국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현재 소련문단의 대표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계 작가 아나톨리 김(Anatoly Kim)도 그토록 오고 싶어 했으나 결국 오지 못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소련의 저항시인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당에 한 핏줄인 동포작가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현상항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 독자들은 작년 말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아나톨리 김의 작품을 읽으며 당분간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러시아 단편문학의 전통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된 아나톨리 김의 작품집은 세권, 단편집「푸른섬」(김근식·최건영 옮김, 정음사), 「사할린의 방랑자들」(최건영·손명곤 옮김, 소나무)과 중편「연꽃」(김대경 옮김, 한마당)이 점두에 나와 있다.

위대한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이을 샛별로 떠오른 아나톨리 김은 1939년 소련의 까자흐스탄공화국에서 韓人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시절부터 한인마을에서 민족고유의 전설과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 그는 사할린과 극동지방에서 영화기사, 건축, 비평활동 등 여러 직업을 거치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 고리기문학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단편소설 작가로 유명한 블라지미르 리진의 지도 아래 5년간 수학하고 최우등 성적으로 71년 졸업한 그는 단편소설에 뜻을 세우고 작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화가 지망생이었던 김의 문단데뷔는 쉽지 않았다. 이미 문학대학의 문을 두드리기 전부터 미술학교에 다닐 만큼



한국적 혼과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융합했다는 평과 함께 소련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계 작가 아나톨리 김. 그는 사할린 동포의 수난과 애환을 격조 높은 단편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보편적 인류애에 호소하고 있다.

예술가로서의 갈등을 겪은 그는, 73년 우연히 레닌그라드의 문예지 「오로라」에 글이 실린 것을 계기로 쉬임없이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게 된다.

그는 일본인들이 무책임하게 저지른 역사에 희생된 사할린 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과 고난을 자신의 문학적 소재로 삼아 이를 형상화하는 한편 작품 속에 독특한 동양적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한국적 혼과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융합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첫단편집 「푸른섬」이 3만부, 「동틀녘의 자두맛」이 10만부, 「사할린 사람들」이 27만부, 장편 「다람쥐」가 10만부씩 발행되었다. 이러한 발행부수로 미루어볼 때 우리는 아나톨리 김이 소련문단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할린 동포들의 고난과 애수 형상화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된 「푸른섬」엔 모두 10편의 단편이, 「사할린의 방랑자들」엔 모두 13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체험과 부인을 잇는 러시아 단편문학의 그윽한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들 작품엔 한결같이

일본에 의해 끌려와 살게 된 한인들의 풍습과 생활, 그 후손들의 정신세계가 어우러져 묘사되고 있다. 학생, 작가, 화가, 군인, 벌목공, 광부 등 다양한 등장인물들은 바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가 그려내는 여러 계층과 세대의 모습은 푸른섬(사할린)에 흐르는 섬 고유의 풍경과, 일본이 지배한 역사적 흔적, 그리고 우리 민족 특유의 애환과 애수로 가득 차 있다. 때로는 쾌청한 하늘 아래 진하게 푸른 공간이 펼쳐져서 맑은 초록과 어울리지만, 때로는 오랜 기간 흐린 날씨 속에 침울한 비가 내리고 고요한 안개로 뒤덮이는 때면 건디기 어려운 애수와 슬픔이 지배하는 곳이 사할린이라고 작가는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나톨리 김이 꼭 사할린에 한정된, 이국정조의 작품만 쓴 것은 아니다. 「사할린의 방랑자들」에 수록된 「도시의 벼락」 「쥐가 우유를 마시다」 등은 대도시에서 사는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다룸으로써 그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그가 그리는 한인사회의 외면적 모습이 단순히 「고난의 역사에 대한 증언」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존재와 운명에 대한 근원적 통찰에 도달함으로써 보편적 호소력을 얻고 있다. 특히 현세의 삶과 사후의 영혼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동양적 세계관(불교사상)은 러시아문학 속에서 그의 존재를 더욱 독보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그의 대표적 중편이며, 발표 당시 소련문단에서 11명의 비평가가 참가하여 논쟁을 벌이는 등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연꽃」에 잘 드러나 있다.

‘모순의 조화’ 지향하는 신비적 작품세계

「연꽃」의 소설적 배경 역시 사할린. 화가인 로호프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모스크바에서 사할린의 조그만 판자집으로 돌아온다. 집 앞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그 뒤에는 끝없는 바다가 몸을 뒤척이고 있다. 밤사이엔 눈보라를 안은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는 가운데 로호프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다. 그는 자신이 사온 오렌지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긴 다음 그 알맹이를 하나씩 빌려 놓는다. 오렌지는 어머니의 손 안에서 마치 연꽃처럼 피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 상황-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삶에서 죽음으로의 변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상징한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모순의 조화’를 의미했던 연꽃은 이 작품에서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그것이 통합된 상태를 암시해준다.

아울러 작가는 이 연꽃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우리’(트이)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통합된다. 그 ‘우리’는 神일 수도 있고, 理氣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하느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한송이 연꽃처럼 ‘우리’에게 가는 길을 안내해준다. 이것이 곧 변신이고 예술은 이 변신의 인간적 추구일 따름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전체를 전체로서 알고 사랑한다. 이처럼 분별을 초월한 조화와 통합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시간과 의식을 뒤섞는 실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험은 카프카나 조이스같은 서구작가들의 ‘의식의 분열’과는 다른, 이 작가 특유의 철학이 반영된 실험이라고 하겠다.

아나톨리 김은 이 ‘우리’ 사상을 보다 확대하여 장편 「다람쥐」에서는 인류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 소나무 출판사에서 준비중인 이 작품은 연말쯤 선을 보일 예정으로 있다.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는 「하얀 배」(김근식 옮김, 정음사)의 아이프마토프와 함께 비러시아계 작가들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나톨리 김의 작품은 우리로하여금 잊혀진 북방정서를 되살리고 사할린 동포들의 서러운 삶을 알려주며 함께 소련 현대문학의 한 극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고 하겠다.

—남진우 기자